

강다니엘, 1인 기획사 설립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강다니엘이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오랜만에 팬들과 소통했다.

독자 활동 가능... "한국과 세계 연결하겠다" 장기적 활동에 맞는 회사 형태 다각도 검토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23)이 솔로 데뷔를 위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강다니엘 측은 솔로 데뷔를 위해 최근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사 이름에는 자신의 활동으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새 출발을 알렸다.

다소 떨리는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음악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이날 방송은 시작 1분 만에 동시 접속자 수 15만 명을 기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강다니엘이 소속사였던 LM엔터테인먼트

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인 기획사 설립으로 방향을 택한 것은 본인의 장기적인 활동에 맞는 회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라며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복귀를 하기 위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곧 솔로 데뷔 날짜를 확정 짓고 데뷔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강다니엘은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지난 1월 워너원이 해산한 뒤 솔로 활동을 계획했으나 LM과 법적 분쟁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김수현 군 복무 마치고 내달 1일 제대...복귀작 검토 중

배우 김수현(31)이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 제대한다.

10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23일 현역으로 입대한 김수현은 1사단 수색대에 지원해 복무했다.

김수현은 어린 시절부터 앓은 심장 질환으로 첫 징병검사 당시 대체 복무에 해당하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결국 1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는 최전방 지역 위험성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1사단 수색대에서도 일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진급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길 정도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7년 데뷔한 김수현은 드라마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와 영화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으로 한류스타로 우뚝 섰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전역 전에 뷰티 브랜드와 전속 모델 계약을 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운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새 매니저에게도 또 7억여원 착취" 고발

과거 조율증(양극성 장애) 등을 앓으며 소속사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던 안타까움을 산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바뀐 매니저에게서 또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에인 인권센터는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씨(59)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여원치 사채를 몰

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줘 위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센터는 고발장에 적시했다.

센터는 유진박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MBC로부터 대부분 자료를 넘겨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 MBC는 다큐멘터리 제작 도중 유진박이 이같은 상황에 놓인 사실을 알게 돼 고발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명문 줄리아드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현란한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 이름을 알렸다. 고 마이클 잭슨 방한 콘서트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연주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우울증과 조율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틈타 그를 폭행·감금하고 착취를 일삼았다는 소문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고발당한 새 매니저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정상기를 누리도록 도왔고, 유진박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리얼리티에 유쾌함 갖춘 '강식당2'

"성장해 나가는 멤버들 모습 관전 포인트"

스타들이 도시를 떠나 식당을 차리고, 시민들에게 요리를 대접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 익숙하다.

그런데도 tvN 예능 '강식당2'가 여전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리얼리티 뿐만 아니라 유쾌함까지 갖춘 덕분이다.

요리와 서빙에 골몰하는 부분에서는 관찰 예능의 매력을, 티격태격 주고받는 입담에서는 웃음이라는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신서유기'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 피오 여섯 남자는 이번에 경주로 떠났다. 지난해 강호동과 가스오 오마이스를 맛보지 못한 아쉬운 팬들이 작정하고 몰린 탓에 제작진은 추첨제까지 도입해야 했다.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요식업계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다시 한번 코치로 초빙했다.

백대표는 이번에 떡볶이와 가락국수 비법을 전수했다. 탄실한 다리로 국수 반죽을 낚는 강호동, 떡볶이보다 '메인' 처럼

보이는 파르투튀김을 튀겨내느라 진이 빠진 안재현의 모습에서는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강호동이 비트를 손질한 후 비트 껍질에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자 끊임 없이 그를 타박하는 이수근, 한결 넓고 쾌적해진 식당에 들떠 메인테마곡 '쓰담쓰담'을 부르는 송민호·피오의 모습은 유쾌했다. '강식당' 이전부터 오랜 기간 워크를 다진 멤버들의 찰떡 호흡이 시청자들의 적응시간도 단축한 셈이다.

리얼함과 유쾌함을 둘 다 잡은 덕분에 시청률 역시 첫 회부터 7.7%(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기록하며 순항을 시작했다.

연출을 맡은 신효정 PD는 "처음엔 '멘붕'(멘탈붕괴)이었다가, 점점 성장해나가는 멤버들 모습이 관전 포인트"라며 "멤버들은 싸워도 진짜 싸우고, 좋아도 진짜 좋아한다. 그 진심을 시청자들에게도 좋게 주시는 것 같다"고 인기요인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사생활 논란 가수 남태현 뮤지컬 '메피스토' 하차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가수 남태현(25·사진)이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하차한다.

제작사 메이커스 프로덕션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남태현 배우는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 이용자들이 남태현 하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지 이틀 만이다.

앞서 남태현은 가수 장재인(28)과 교제 도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장재인으로부터 공개비판을 받은 7일 사과글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해 비난받았고, 이튿날 "상처받은 장재인 씨와 다른 여성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재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메피스토'는 지난달 25일 국내 초연된 체코 뮤지컬로 독일 문호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다. 악마 메피스토 역을 맡은 남태현은 지난 8~9일 이틀간 무대에 올랐다. 당초 13일도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구설에 오르며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메피스토'는 7월 28일까지 압구정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된다.

악마 메피스토 역은 인피니트 남우현, 빅스 켄, 핫샷 노태현 등이 맡으며 고니하는 파우스트 역은 신성우, 김법래, 문종원이 출연해 중심을 잡고 있다. 마르케타 역은 구구단 나영과 권민제, 린지 등이 노래한다. /연합뉴스

오늘의 TV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00 로보카 폴리 30 뽀롱뽀롱 뽀로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수상한 장모	00 동동동 유치원 10 두근두근 방방 45 최고다! 호기심딱지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우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마사와 곰 40 극한직업 스페셜(재)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2019 메이저리그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전국이정회의(재) 50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00 퍼펙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피는 남자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00 EBS 정오뉴스 10 미래교육 플러스
1	00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루기(재)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00 다큐 오늘 10 최고의 요리비결
2	40 팔도밥상 스페셜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0 꼬마버스 타요(재) 45 로보카 폴리(재)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재) 55 뽀롱뽀롱 뽀로로		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30 뽀롱뽀롱 뽀로로(재) 45 출동! 슈퍼퀵스(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우만만	55 경성판타지(재)	00 고경전문학 스페셜	15 세미와 매직큐브 40 두근두근 방방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장애발굴단	00 EBS 뉴스 20 명탐정 피트 45 마사와 곰(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00 토크! 보니 하니 25 화산섬의 비밀 45 우리 몸 Z파일
7	00 KBS 뉴스 7 40 6월, 당신의 민주주의	5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30 MBC 뉴스데스크	00 TV블로그 폼자락	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30 생방송 판다
8	30 여름아 부탁해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00 갤럭시 프로젝트 30 아기 동물 귀여워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퍼펙트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45 건축탐구 - 집
11	35 슬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55 미래교육 플러스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재능e 50 한국영화특선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02-766-1818 www.esazu.com	6월 11일 (음력 5월 9일)
	48년생 소중함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60년생 원하는 것을 이룬다. 72년생 배우자와 다 투지 말고 양보하라. 84년생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42년생 무작정 인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54년생 큰 뜻을 세우고 앞만 보고 가라. 66년생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78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49년생 쌓은 공덕으로 인해 존경을 받는다. 61년생 하는 일마다 잘 된다. 7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5년생 자신감이 넘치는 멋진 날이다.		43년생 절대 내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지 마라. 55년생 시련은 가고 행복만 남았다. 67년생 호박이 낱줄째 굴러 들어온다. 79년생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부른다.	
	50년생 대응적으로 생각해보라. 62년생 업무상 멋진 파트너를 만난다. 74년생 신운이 회복되고 새 희망을 품는다. 86년생 소인배들의 이간질을 경계하라.		44년생 무조건 오늘날만 다투지 마라. 56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68년생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80년생 지나치게 친절할 자를 조심하라.	
	51년생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63년생 매도 먼저 맞는 편이 오히려 낫다. 75년생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87년생 겸손한 자에게 행운이 따르겠다.		45년생 자존심과 권위를 지켜라. 57년생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마라. 69년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81년생 현상유지만 하면 선방할 셈이다.	
	52년생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64년생 권력과 재물을 얻는다. 76년생 능력을 펼치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8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46년생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58년생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70년생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82년생 기대하지도 못한 대어를 낚는다.	
	41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53년생 운세가 좋아지니 승부수를 던질 때이다. 65년생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77년생 현실을 무시하면 낭패를 본다.		47년생 근심이 사라진다. 59년생 동료의 배신이 우려되니 항상 조심하라. 71년생 되도록 솔직하게 피하고 일찍 귀가하라. 83년생 승진의 기쁨이 있겠다.	